

25. 생명의 길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창8:20-9:4).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온 세상은 동산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동산 밖에 있는 세계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섭리하신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두셨다.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사는 영역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사는 세계가 동산이다.

사람은 마땅히 그런 세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은 다른 길이다. 세상을 정상적이라고 보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다.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들릴 수밖에 없다. 세계가 다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미국에 있을 때와 한국에 있을 때가 다르다. 같은 땅에서도 그러한대 하물며 생각이 전혀 다른 세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런 세계 안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구별이 없이 혼란되어 있으면 거기서 그 가치를 찾게 되니까 맞지 않게 된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그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 없다. 십 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없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달랐다. 그러니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막막해졌다. 그리고 그가 백 살이 될 때까지 아무 계시도 인도함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백 살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틀렸구나.'라

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와서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어떻게 백 살 먹은 아브라함과 구십 살 먹은 사라가 아들을 낳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세계가 다르다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노력 안에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력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다.

왜 끝나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정상이라면, 동산 안에서라면 끝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산 안이 아니라 동산밖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그나마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군대에서의 개념은 집이나 사회에서 살던 개념과 다르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더구나 민주사회에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이 상식밖의 일인데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복종해야 한다. 사회와 군대는 전혀 다른 세계니까 그렇게 알아야 그 생활이 가능해진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은 우리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세계다. 그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왔다. 거기서 그 상식으로 아기를 낳아 봤자 도로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마지기’라는 말은 한 말의 씨앗을 뿌릴 만한 면적을 의미하는데 한 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이백 평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백오십 평이다. 옛날에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한 마지기에서 쌀 한 가마니가 나왔다. 그것으로는 식량이 모자랐다. 봄이 돌아와서 춘궁기가 되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했다. 새로 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보면 안에 달자근한 것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을 먹고 살았던 것이다. 해방 후에는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원조해 주어서 강냉이 가루나 탈지 분유 같은 것으로 연명했다. 지금은 밀가루가 있으니까 강냉이 가루와 섞어서 요리를 하면 맛이 있겠지만 그때는 강냉이 가루로 죽을 쑤거나 밀개떡처럼 만들어 먹고 살았다. 해방 후 십 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5.16 혁명 이후에 통일벼가 개발되었고 한 마지기에서 한 가마니밖에 안 나오던 쌀이 네 가마니나 나왔다. 그래서 식량문제가 해결되었다. 반만 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것이다.

미 국회의사당 앞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과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이 있는데 맨 앞에 잠바 차림의 기술자의 동상이 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개발한 사람이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동상을 역대 대통령들의 맨 앞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렇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텔레비전 기술을 통해서 발전된 기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들어와서 사농공상이 되어 버렸다. 선비를 최고로 쳤고 두 번째는 농사짓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기술자고 마지막이 상인이다.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서구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농민혁명이 아니라 상공

인의 혁명이다. 상공인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가져오고 장사를 하다 보니 공장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아져서 봉건군주들에게 꿀릴 것이 없게 되었다. 무기를 갖게 되고 군대를 갖게 되어 봉건 군주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상은 천민계급이었다. 장사치나 대장장이를 천하게 대우했다. 그런 사상이 5.16전까지 있었다. 그런데 5.16이 생겨서 일종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셈이다. 산업화되고 의식이 바뀌어서 요즘 아이들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지 전처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가 없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빵집도 하고 떡갈비집도 한다. 옛날에 상상치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신통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면 다른 세계라고 알아야 한다. 초창기에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교장 출신도 있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직업의 귀천이 없어서 교장하던 사람도 거기서 접시닢이를 해도 부끄럽지 않다. 미국에 좋은 직장이 많아서 일자리가 많은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냥 노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장하던 사람이 접시닢이를 하겠는가. 죽어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한국에서 하면 금방 성공할 것이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의식이 달라야 한다. 다른 의식으로 들어야 말씀이 들린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사람 얘기를 들어봤자 무슨 소린지 모른다.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사랑방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누가 정상인지 모른다. 누가 알라파고스 사람이고 누가 몰라파고스 사람인지 모른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이다. 전혀 세계가 다르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개념이 다른 것이다. 세상에도 어느 잔치에 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 옛날에는 잔치집에 가려면 의관을 차려야 했다. 일하던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잔치집을 모독하는 것이다. 노아가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다른 세계다.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잘되었다. 포도가 풍성하니 포도주가 넘쳤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가난해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포도주가 충분하다는 것은 풍부하다는 뜻이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아랫도리가 벗어진 줄 모르고 잠이 들었는데 세 아들 중 두 번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셈과 야

벧은 그들의 걸음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 주고 나왔다. 노아가 깨어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노아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묘한 일이 벌어졌다.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함을 저주한 것이다.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노아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오히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벧은 창대케 되어 셈의 집에 거할 것이다.”라고 축복했는데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했다. 왜 그러했겠는가? 이 노선은 다른 노선이다. 지식의 노선이 아니라 생명의 노선이다. 지식의 노선에서 보면 노아가 잘못했지 함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생명의 노선에서 보면 다르다. 생명이니까 포도주를 마셨으니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취했으니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자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사건이 또 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뛰놀며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창으로 보고 있던 왕비 미갈이 “왕이 되어 무슨 채신머리가 그 모양이냐.”며 다윗을 비난했던 것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다. 왕이 되었으면 백성 앞에서 품위를 갖추어야 하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었으니 왕의 채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 왕실에서 자랐고 왕실의 법도를 아는 여자다. 그에 비해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사람이다. 두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다윗은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고 미갈은 후손이 없다. 이것을 지식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미갈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다. 아내가 그렇게 충고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며 미갈을 저주했던 것이다. 이것도 순수한 생명의 노선이다. 지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윗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도망쳐 다닐 때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었다. 그때 나온 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일을 기억한다는 시다.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에는 당연한 것이다.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당연하다. 전혀 길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알아야 한다. 이 길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지식으로 해석하고 지식에 해당되는 것만, 자기 상식에 맞는 것만, 세상 풍조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지게 된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된다.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세상을 키워 주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반대 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오히려 세상에 말려 들어가서 세상화되어 버렸다.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른 줄 알지만 그런다고 다른 것이 아니다. 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보기 좋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시겠는가? 그런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배고픈 부모를 앓혀 놓고 그 앞에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부르

면 부모가 좋아하시겠는가? 기가 막히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배고픈 것이 있다. 갈망이 있다. 자신과 연합해야 될 인간관계가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즐겁자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성가대도 하고 나팔도 부르고 별 것을 다한다. 인간이 볼 때는 그럴싸하고 예배가 거룩하게 드러지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도 배고프신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진실한 한 마디 간증이, 과부의 엽전 한 푼이, 상한 심령이 필요하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별 것 아닌 일을 말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들으면 '시시하게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고상하고 그럴듯하고 지식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저런 말을 왜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상한 심령이지 근사한 지식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교회를 보는 입장도 다르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달라야 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을 갈 때 흰 소와 검은 소를 겨리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셨다.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갈면서 한쪽은 흰 소를 두고 한쪽은 검은 소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천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다. 흰 것은 흰 것대로 필요하고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필요하니 섞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식은 지식이고 생명은 생명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은 다른 것과 섞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혼합되고 섞이면 생명은 망하는 것이다. 지금 유전인자를 조작한 콩을 생산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먹어서 좋을지 안좋을지 아직 모른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은 대부분이 변종이다. 그것이 인체에 좋다고 볼 수 없다. 암이라는 것이 변종된 것이다. 우리의 세포가 변한 것이 암이다. 변종된 암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겠는가.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노선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 버리고 만다.

노아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았다. 가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아 때부터는 단을 쌓았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도, 야곱도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성막의 번제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 것이다.

단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상인 것이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되고 음식도 좋아야 하고 상도 좋아야 한다.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같이 먹지 않고 상을 따로 차렸다. 전에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실수로 우리 식구와 겸상을 했다. 바깥에는 형제들이 둥그런 상을 놓고 식사를 했고 우리 식구는 방에서 접었다 펼 수 있는 알미늄 식판에 밥을 먹었는데 그분을 같이 드시게 했던 것이

다. 눈치를 보니 별로 안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예절법도를 중요시하는 분이어서 따로 차려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환경도 안되고 나도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지금도 그분에게 미안하다.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어 오셨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었겠는가. 속으로 '내가 망하니까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천대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후에 그분을 일부러 찾아갔다. 잣을 좋아하시니까 잣을 사서 갔는데 잣을 한 줌 쥐고 부인이 자기 병간호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른을 대접할 때는 상에 대접해야 되지 땅바닥에서 대접할 수 없다. 그래서 단을 쌓았던 것이다.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무 것이나 드리면 안된다. 요즘은 제사를 드려도 귀신 눈 속이는 것을 놓고 드린다. 비닐에 싸서 먹지 않을 것,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 보기만 좋게 해 놓은 것을 차려 놓는다. 오늘날 예배도 그렇게 된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꾸미려니까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우리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무엇을 더 붙이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다. 해 봤는데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안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의식도 해 보았지만 이상하게 그것도 마음에 맞지 않았다. 꾸민 것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꾸며서 만나면 안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인위적으로 꾸미면 되겠는가.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으로 드렸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보기 이상한 것은 드리지 않는다. 장어같은 것은 제사상에 못올린다. 조기나 민어와 같이 보기 좋은 것이어야 올릴 수 있지 갈치나 장어처럼 징그럽게 생긴 것은 못올린다. 사람의 생각도 이러하다.

그러므로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정결한 것은 가장 진실한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정결한 것으로 드렸던 것이다. 양이나 송아지를 드려도 제사장이 일일이 검사해서 흠집이 있으면 안된다. 유월절 양도 정해서 나흘 동안 검사를 한 다음에 제물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결한 것이 인간의 생각처럼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순수해야 하고 생명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은 순수하다. 그것이 비록 더러운 데 살아도 생명은 순수하다. 똥속에 살고 있는 구더기도 똥은 더럽지만 구더기 자체는 생명이니깐 깨끗하다. 부정한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기에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결해야 하고 순수해야 한다.

정결한 것으로 단 위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의 죄악을 인해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땅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바울도 자기가 죄인중의 괴수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모태로부터 죄인이라고 했다. 사람 속에 깊이 들어있는 거역의 본성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생의 길을 말씀하셨다. 다시 나아 된다고 하셨다. 다시 나지 않고는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나아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지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세웠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이것은 아담에게도 주셨던 언약이다.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몰라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나 없어야 된다고나 말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다. 옳느냐 그르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다.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옳느냐 그르느냐로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6.25이후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동부전선에서 중공군과 백병전을 하던 이야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니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다. 전쟁이 남이 하면 즐겁지만 내가 하면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옳은 것은 놔두고 잘못된 것은 다 없애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살리는 것이 장땡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러면 지옥에 가고 이러면 천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안된다. 그것은 세상이고 지식이다. 옳고 그른 것으로 만나면 그 사람도 나를 옳고 그른 것으로 만난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한다. 서로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장이 다르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하다. 두쪽으로 갈라져서 facebook 같은 데서 보면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

다. 나는 해방 이후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대립이 없어도 6.25 때 군대에서 죽은 사람보다 톱질을 하듯이 양방향으로 민간인을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다. 동네가 몰살당하기도 했고 씨족이 몰살당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내려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주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다. 다 처리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인민군이 나타났다. 인민군이 죽였다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스탈린 치하에서 이천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스탈린이 자기를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창조자의 마음이다. 이것이 생명의 말이고 복음이다.

그리고 짐승들이 다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짐승들’은 특별한 사명이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 특별한 사명이 없이 그냥 생긴 대로 사람을 창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계시록에서 짐승들은 세상의 왕들이다. ‘어떻게 세상은 왕들을 666으로, 짐승으로 표현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렇다. 세상 왕들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형제간에도, 부자간에도 서로 죽여야 한다. 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했다. 친족, 처족, 외족 삼족을 멸하고 그 집은 불태우고 그 자리를 파서 우물을 만들었다. 그러니 짐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짐승도 그런 짐승은 없다. 임금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다. 중국 고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주나라의 무왕과 문왕은 부자간인데 아들인 무왕이 먼저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분의 어머니 이름이 태임(太任)이다. 율곡 선생 어머니의 당호가 사임당(師任堂)인데 그 의미가 그분(任)을, 문왕과 무왕을 낳은 그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임금이 아버지에게 양위를 한 역사는 우리나라에 없다. 이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어떤 짐승을 TV에 보았는데 생긴 것은 하이에나처럼 생겼고 꼬리가 길었다. 그놈이 새끼를 낳으면 일 년된 새끼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사냥을 해서 어미에게 갖다 주고 어미는 그것을 먹고 새끼를 키우는 것이었다. 희한한 놈들이다. 그러다 일 년된 놈이 또 일 년이 되면 나가서 독립한다. 일 년 동안을 형들이 키워 주는 셈이다. 그런 짐승이 있다. 사람보다 낫다.

세상의 임금들을 짐승들이라고 했는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단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지식으로 연결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오늘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지 지식의 관계가 아니다.’ ‘지식’이라 해서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명으로 되어 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고 예수는 생명의 주님으로 전파되었다.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오순절에 받았던 생명의 영을 알기 어렵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것은 생명 언어라는 것이다. 어떻게 외국말을 알아듣겠는가. 생명의 말이니까 알아들은 것이다. 생명의 말은 언어가 아니라도 사람이 교통하게 되어 있다. 생명끼리는 교통이 된다. 야한 말이지만 마를린 몬로는 “육체는 말을 한다.”라는 말을 했다. 언어가 있기 전에 생명이 먼저 있다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한 것은 희랍 사상을 끌어들이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여 인격으로 끌어들이었다. 본래 희랍인들의 로고스는 생명이 없는 지식이다. 그것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려고 로고스를 끌어들이는 것이니까 희랍인들의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안된다. 요한의 의도는 다르다. 껍데기는 로고스지만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마음이다.

이것을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했다. 이 말을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접붙여졌다고 하였다. 접붙여지려면 양쪽이 다 잘려야 한다. 뿌리될 부분도 자르고 가지될 부분도 잘라서 잘린 곳을 붙이는 것이 접붙임이다. 이것도 생명의 길이다. 지금 과일나무는 대부분이 접붙인 나무들이다. 밑둥을 부면 접붙인 표시가 난다. 접붙이면 뿌리는 탕자나무일지라도 위에 굴나무를 접붙여서 굴이 열린다. 생명의 접붙임인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연합을 말한 것이다. 연합이 아니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겠는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한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가지고 말했고 바울도 생명을 가지고 말했다. 베드로 역시 생명의 말을 한 것이다. 복음은 생명 안에서 나왔지 지식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복음은 우리 생각에 없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 있으면 그것이 복음이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문화가 우리를 살리겠는가, 문명이 우리를 살리겠는가. 종교가 우리를 살리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리겠는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시자 사람들은 “자기

가 누군데 살과 피를 준다는 말인가?” 하며 수근거렸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다. 이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대답한 것이다. 다 모르지만 신통한 대답을 한 것이다.

생명의 노선이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 지식의 노선으로 빠져 버린다. 신학의 노선으로 빠져 버린다. 그러면 헛일을 하는 것이 된다. 예수를 믿으나 안믿으나 똑같이 되고 만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헛일을 안하려면 이 길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 생명의 노선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세상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당장 불덩어리가 되고 만다. 세상이 문화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만으로는 인류는 금방 멸망한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이것만은 남아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없어졌어도 이것만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 이것만이 희망이다. 다른 것은 굉장한 것 같아도, 달나라를 가고 화성이나 목성을 가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회복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원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생명의 길이라야 되지 다른 데서 잡으면 안된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장수족 속에 들어가도 안되고 네피림이나 바벨탑 속에 들어가도 안된다. 그것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결국 없어진다. 생명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어진다.

생명의 길이라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배격해야 한다. 남들이 하니깐 우리도 하자고 하면 안된다. 그렇다고 배타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이 살고 기독교가 산다.

기독교는 지금 궁지에 빠져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 불교만도 못하게 되었다. 불교가 들어간 데는 싸움이 없는데 기독교는 들어간 데마다 싸운다. 무엇을 잘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